

Let's
Connect,
It's KoNECT!

글로벌 신약개발에 아시아 연구자를 잇다

KoNECT, 아시아 6개국 위암 연구자 네트워크 지원 개시



지난 6월 15일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KoNECT)는 아시아 위암 임상 연구자 네트워크(Asia Gastric Cancer Network) 발족식을 개최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김열홍 교수가 초대 의장으로 위촉됐으며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대만을 포함하는 아시아 6개국의 권위 있는 위암 분야 연구자 12명이 네트워크에 참여했다.

위암은 암으로 진단받는 환자의 약 2.4%가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한국은 그보다 높은 약 2.5%를 차지하는 등 아시아 환자들에서 호발하는 질환이다. 이처럼 위암은 지역적 미충족 의료 수요(Regional Unmet Medical Needs)가 상당히 높은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제약사들의 성공적인 신약 개발이 오랫동안 따르지 못 했다. 연자로 참석한 한국 노바티스의 김은경 상무 (항암제 사업부, 의학 담당)에 의하면, `11년부터 `15년 사이에 시판된 항암제 신약 70여 개 품목 중 위암을 대상으로 허가받은 신약은 단 하나뿐이다.

아시아 위암 임상 연구자 네트워크는 임상 연구자들이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는 글로벌 제약사의 임상 개발 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등 적극적인 산-학간 소통을 목적으로 결성됐다. 이번에 결성된 네트워크는 작년 말 KoNECT가 지원한 동북아 임상 약동학 네트워크인 서울대, 인제대 및 일본 기타자토대와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KoNECT는 위암 항암제 개발 시장에 대한 조사와 사업 개발, 그리고 글로벌 제약사와의 파트너십을 위한 게이트웨이의 역할을 주로 담당할 예정이다. 더불어, 아시아 호발 질환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지원 연구자 네트워크의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